

이반 바조프의 소설 '명에'에 나타난 '배반'의 의미

야니짜 이바노바 (소피아 대학교)

1. 서론

불가리아인들은 문학가인 이반 바조프를 '불가리아 문학 족장'이라고 부른다. 1878년 불가리아가 해방된 후 투르크의 지배하에 있었던 5세기보다 훨씬 유리한 문학 발전의 풍토가 조성되었다. 이반 바조프는 작가로서는 거의 단독으로 해방 이전과 이후의 시대를 연결해준다. 그의 시·단편소설·장편소설·희곡에는 불가리아의 농촌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이 깃들여 있으며 불가리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1870년대 초부터 1921년까지 쏟아져나온 그의 방대한 저술은 모든 주요 장르에 걸쳐 불가리아 민족의 삶의 모든 단면, 과거와 현재 등을 반영하고 있다. 이로써 그는 '민족시인'이라는 칭호도 얻었다. 그의 연작 서사시 <잊혀진 자들에게 바치는 서사시 Epopeya na zabravenite> (1881~1884)는 놀라운 상상력으로 독립투쟁의 많은 영웅의 혼을 불러들였다. 그의 문학적 능력이 뛰어난 것은 중편소설 <아저씨들 Chichovtsi> (1895)에 잘 나타나 있다. 투르크의 지배를 받던 불가리아 지방 '유지들'의 사실주의적 초상화와 같은 작품이다. 바조프가 중편 <사랑받지 못하는 자 Nemili-nedragi> (1883), 장편 <신세계 Nova Zemya> (1896)와 <카잘라르의 여제 Kazalarskata Tsaritsa> (1903), <스벤토슬라프 테르테르 Svetoslav Terter> (1907), <심연을 향해 Kam propast> (1910), <보리슬라프 Borislav> (1910) 등을 썼다. 그의 단편소설은 흥미진진하며 불가리아의 역사와 지방을 다룬 여행기는 독자들의 견문을 넓혀준다. 그의 가장 인기

있는 희곡 호쇼베 Hushove) (1894)가 해방 전에 국외로 추방된 사람들이 루마니아에서 겪는 수난을 묘사하고 있으며, 중세 불가리아를 배경으로 한 그의 다른 드라마들과 함께 소피아 국립극장(1907 창설)에서 자주 상연되었다.

2. 이반 바조프 인생

이반 민조프 바조프(1850.6.27~1921.9.22)는 소포트라는 작은 불가리아 도시에 서 태어났다. 터키 통치 시대에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의 형제 게오르기 바조프와 블라디미르 바조프는 독립운동가였고, 그의 형제 보리스 바조프는 정치가였다. 어린 바조프는 소포트의 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러시아말을 배우게 된다. 나중에 1865 년도에 칼로페르 도시로 가서 그리스어와 터키어를 배웠다. 그 당시 그의 선생은 유명한 불가리아 독립운동가이며 시인인 흐리스토 보테브의 아버지 보토 페트코프였다. 칼로페르 학교에서 바조프는 문학에 열중하여 러시아·프랑스의 문학작품을 탐독했으며, 나중에 보토 페트코프의 조교로 일하였다. 1866 년 그는 플로브디브 고등학교를 다니며 그리스어와 터키어를 배우며 프랑스어도 열심히 공부했다. 바조프가 좋아하는 프랑스 작가로는 피에르 잔도 베란제(Pierre-Jean de Béranger), 빅토르 위고, 알퐁스 마리 루이 드 프라 드 라마르틴 (Alphonse Marie Louis de Prat de Lamartine) 등이 있고 이런 외국 작품들이 그의 문인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년 후인 1868년 그의 아버지는 사업을 도와 달라고 그를 불렀지만 젊은 바조프는 사업에 대한 관심은 없었으며 자주 시를 쓰며 시간을 보냈다. 그 당시에 그가 지은 시 일부가 1880년 (오월 꽃다발 Maiska kitka)

시집으로 출판되었다. 1870 년의 그의 첫번째 시 (소나무 Borut)는 정기간행지에 게재되었다.

바조프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상인이 되길 바랬기 때문에 바조프를 루마니아로 보냈다. 그는 거기서 루마니아어를 배워서 루마니아 시를 읽으면서 Periodichesko spisanie, Chitalishte, Otechestvo 잡지와 자유신문에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 후 그는 브라일라라는 루마니아 도시로 옮겨서 2-3 개월 동안 독립운동가와 같이 지내기도 했다. 거기서 보테프를 만나 불가리아 독립에 대한 열망을 키웠다. 그는 1870 년도 불가리아로 돌아왔고 독일어를 배우면서 프랑스어 통역일을 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에도 계속 시를 발표하였고, 산문과 극작 분야에서도 활약하였다. 불가리아에 돌아와 스타라 자고라 국민 봉기가 실패 이후에 루마니아로 망명해서 부쿠레슈티에서 국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노래한 3부작 시집 《기(旗)와 구슬라 Pryaporets i gusla》와 《불가리아의 슬픔 Tagite na Bulgaria》을 준비했다. 러시아 터키 해방 전쟁 때 (해방 Izbavlenie) 시집도 썼다.

그 후의 이반 바조프의 삶을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베르코비짜에 살았던 시기, 플로브디브에서 살았던 기간, 러시아에 거주했던 시기와 소피아에 살았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그는 베르코비짜에서 1879년 3월 7일부터 1880년 9월까지 살았으며 (쌍인 돌 Gramada) 시를 썼다. 1880년 10월 5일부터 플로브디브에서 살면서 열정적으로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며 콘스탄틴 벨리츠코프 작가와 같이 Narodni glas 신문에서 교정일을 하였다. 그 외에 Nauka 잡지를 1881년부터 직접 간행했다. 그 잡지는 Osvobojudenieto (1878) 잡지 이후의 첫 과학과 문학에 대한 간행본이다. 플로브디브에서는 불가리아 독서집 Bulgarska hristomatia 두 권을 출판했는데 거기에는 100명 이상의 불가리아 작가와 외국 작가의

작품들이 실려 있다. 그리고 플로브디에서 애국의 정열을 쏟아 노래한 (잊혀진 자들에게 바치는 서사시 Еропея на забравените), (릴라 사원으로 Pri Rilska manastir), (불가리아어 Bulgarskiat ezik), (자유로 Kam svobodata), (끝 수 없는 것을 끝 수가 없다 Ne se gasi tui shto ne gasne), (슬리브니짜의 새로운 묘지 Novoto grobishte nad Slivnitsa) 시와 중편 소설 (사랑받지 못하는 자 Nemili-nedragi) (1883), (아저씨들 Chichovtsi)와 단편 소설 (오는가 Ide li)를 발표했다.

스테판 스타ம்ப로프가 불가리아에서 반러시아 정책을 폈을 때 오테사로 망명해(1886~89)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불가리아인들의 시련을 그린 연대기 형식의 걸작 장편소설 <명에 Pod igoto> (1894)를 쓰기 시작했다.

바조프는 소피아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1889년에 소피아로 옮겨 와서 1890년에 Denitsa 잡지를 간행했다. 그때(선(線)과 문의 Draski i sharki) 단편소설집 (2 권)이 나왔다. 그 이후에 (신세계 Nova zemya) 소설을 썼는데 심각한 바쁨을 받아 더 이상 작품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정치가로서 일을 하였다. 1898~1999년에는 교육장관을 지냈고 1920년에 70살 되던 해 바조프는 `민족작가`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1년 후인 1921년 그는 심장 마비로 죽게 된다.

사후 그의 박물관도 생겼고 현재 국민극장을 이반 바조프라고 부르고 많은 거리, 학교, 도서관, 동네 등이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의 후기의 작품들은 사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후퇴하였으나 초기의 작품들은 문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 받고 있는 훌륭한 명작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장편 소설 `명에`는 뛰어난 상상력과 애국의 정열이 담긴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3. 장편소설 `명에`

1886년 8월 9일 불가리아에서 일어난 쿠데타와 정치적 압박으로 바조프는 불가리아를 떠나 몇개월 동안 짜리그라드에서 지내다가 오테사로 이동하여 살았다. 향수병에 걸린 그가 (명에 Pod igoto)라는 장편 소설을 썼다. 그의 서술적 재능은 불가리아의 '국민소설'로 잘 알려진 `명에`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이 소설은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혁명가가 주인공으로 투르크에 대항한 불가리아인들의 투쟁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소설의 첫부분을 1889년 (민담, 과학과 문학 문집 Sbornik za narodni umotvorenia, nauka i knijnina) 책에 나왔고, 1890년에는 나머지 부분이 같은 간행지에 출판이 되었다. 그 후 1894년도에는 `명에`가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 소설은 프랑스 낭만주의의 많은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명에`는 역사 소설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은 1876년 4월 불가리아인의 독립 투쟁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 불가리아 사람들의 계몽사상을 묘사한 것이다. 소설 `명에`의 주인공은 독립운동가이고 불가리아 사람들을 계몽시키려는 인물이다. 그의 친구도 독립 운동가이고 그들 역시 불가리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 중 일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민족, 사상, 동네 사람을 배반한다.

줄거리

첫 부분

양반인 마르코가 가족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터키인이 죽인 어린아이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마르코는 보수주의자이지만 계몽

운동에도 참여를 하는 인물이다. 그 날 밤 갑자기 밖에서 들이는 소리에 마르코가 밖으로 나와서 자기 친구의 아들을 발견한다. 이반 크랄리츠라는 친구의 아들은 반터키 운동 때문에 감옥에 갇혀다가 탈출해서 마르코집을 찾아 온 것이다. 이반 크랄리츠를 외양간에 숨겨 주었는데 터키인들이 마르코 집을 찾아와 그를 동네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물레방아에 숨으라고 한다. 이반 크랄리츠는 물레방아에 사람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물레방아의 주인 스토얀과 그의 젊은 딸 마리아카가 물레방아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터키인 두 명이 물레방아를 찾아 온다. 그들 중 하나는 바로 어린 아이를 죽인 사람이었다. 터키인 두 명이 주인 스토얀을 없애 버리고 그의 딸을 데리고 놀려고 했는데 그 때 이반 크랄리츠는 밖으로 나와 스토얀과 같이 두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터키인들과 같이 왔던 개를 근처에 있는 시내에 버린다. 아무 누구도 그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동네에서 살고 있는 백치 문초가 그것을 봤다. 문초는 나중에 이반 크랄리츠를 너무 존경해서 루씨얀이라고 불렀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에 이반 크랄리츠는 동네에 있는 하얀 교회에 숨었다. 그리고 그는 비켄티이 집사와 소콜로브 의사가 좋은 친구가 된다. 소콜로브 의사와 이반 크랄리츠의 만남은 하나의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의사는 밤에 추워하는 이반을 만나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옷을 선물로 주었다. 이반 크랄리츠는 자기 옷에 있는 독립운동 관련 서류를 그 코트 주머니에 넣는다. 나중에 크랄리츠가 터키인한테 쫓길 때 터키인은 그 옷을 빼앗아서 어두운 밤에 자신이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의사인줄 알고 소콜로브를 체포한다. 그의 옷에 있는 반터키 잡지와 독립운동에 대한 편지를 보고 그 의사를 체포한 것이다. 그런데 투옥에 대한 결정을 그 동네의 터키인 지도자 아니라 큰 도시의 터키 지도자가 내려야 하기 때문에

소콜로브를 잠시 그 지역 감옥에 있다가 큰 도시로 옮겨졌다. 터키인은 소콜로브의 서류를 넣은 봉투를 술집에 들렀다가 그곳에 봉투를 잊어 버리고 나간다. 그 사이 마르코는 봉투를 몰래 열어 속에 있는 서류를 일반 신문과 편지로 바꿔치기한다. 소콜로브가 큰 도시로 후송된 후 봉투 내용을 확인한 터키인은 그를 풀어준다. 그 사건 후 두 사람은 친한 친구가 된다. 소콜로브와 수도원의 집사 두 사람이 주인공을 도와 주기로 하고 그를 보이초 오그냐노브 (보이초 - 싸움이라는 뜻, 오근 - 불 (火)이라는 뜻)라는 이름으로 하얀교회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 준다.

같은 동네에 유르단이라는 양반도 사는데 그 사람은 터키편이다. 그들은 타인의 불행을 즐기며 독립 운동을 반대하고 터키 지배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반란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집의 딸 랄카는 소콜로브 의사를 남몰래 좋아하게 된다.

며칠 후에 동네 학교에 시험이 있다. 교사가 젊은 여자인데 사람들에게 학생들을 직접 시험해 볼 기회를 준다. 그 시험 때 보이초 오그냐노브가 나서서 사람들의 사랑을 얻게 된다. 시험때 한 학생이 집에서 터키지배 멸망에 대한 소리 들은 것을 그대로 말을 해서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게 된다.

보이초 오그냐노브가 동네에서 독립운동을 인도하면서 여학교에 교사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 사이에 동네에 독립 투사 무라틀리이스키가 나타나서 오그냐노브와 함께 독립 회의에 참석한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밤에 오그냐노브와 수도원의 집사가 물레방아 근처에 말을 하다가 오그냐노브가 죽인 터키인의 개가 나타나 오그냐노브를 물기 시작한다.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현지 터키 지도자한테 전달했지만 그때 지도자가 별 관심을 내지 않고 오그냐노브가 터키인을 죽였다고 의심을 하지 않는다.

‘멍에’ 소설집에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동네 남자들이 동네 사람을 위해 연극을 준비해서 공연했을 때이다. 그 동네 터키 지도자도 연극을 보러 가고 불가리아 사람이 옆에서 통역을 해 준다. 준비한 연극은 비극 ‘불쌍한 게노베바 Mnogostradalna Genoveva’이고 오그냐노브가 주인공 역할을 한다. 모든 배우들이 우스꽝스럽게 연극하지만 연극에 몰두해 열정적으로 연기를 하니까 관중이 눈물을 흘리며 실감나게 연극을 관람한다. 공연의 끝 부분에 여자와 남자 주인공이 사랑의 노래를 해야 하는 순간에 관중에서 한사람이 대신 독립운동을 부르기 시작한다. 흥분한 관중들은 그를 따라서 열심히 노래를 부른다. 터키어 통역사가 터키인 지도자에게 그것은 사랑의 노래라고 하며 가사를 본인이 상상해서 전달을 하니까 지도자는 끝까지 그것은 연가(戀歌)인줄 알고 배우들을 체포하지 않는다.

바조브 소설 대부분에 중요한 이야기들은 모두 술집이나 여관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멍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얀 교회 마을의 술집에서 사람들이 터키와 헤르체고비나 전쟁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반터키 운동 그리고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헤르체고비나에서 터키 승리에 대한 뉴스를 믿지 않고 터키인들이 전쟁에 실패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무척 기뻐한다. 그리고 불가리아 사람들이 헤르체고비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터키를 이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신다. 같은 술집에서 ‘게노베바’ 공연에 대한 의논을 하며 보이초가 잘했다고 해서 스테프초프가 훨씬 더 주인공을 싫어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스테프초프가 보이초가 반란군이라고 생각한다.

어두운 밤 소콜로브와 오그냐노브가 스타브리 신부에 집으로 놀러 가는 동안 어둠 속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그는 두 사람을 쫓아 간다.

두 사람은 신부에 집에 가서 밀카 토도르치나라는 그 동네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한다. 밀카가 남자가 많았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아버지가 걱정한다는 말을 나눈다. 그리고 최근에 라츠코가 그 여자의 집을 몰래 소문이 들린다고 한다. 같은 날 밤 밀카 토도르치나 집에 누군가가 몰래 들어가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그 사람이 라츠코인 줄 알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다. 그런데 사람이 모여서 강제로 밀카의 방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서 스테프초프가 나온다. 그는 유르단의 딸 탈카와 결혼을 하기 전에 밀카한테 쓴 연애 편지를 먼저 없애 버리기 위해 그 집에 들린 것이었다. 아버지가 놀라서 스테프초프를 보낸다. 스테프초프가 바로 그 날 밤에 소콜로브와 오그냐노브을 뒤쫓은 사람이었다. 스테프초프는 밀카에 집에서 모인 사람들을 오그냐노브가 부른 줄 알고 훨씬 더 주인공을 미워하게 된다.

일요일날 교회에 예배가 있는 동안 문초 등신이 신부한테 가서 물레방아 근처에 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사실은 터키인들이 물레방아 옆의 두 터키인들의 묘지를 발견하고 교회 앞으로 가서 오그냐노브를 체포하려고 잠복한다. 이런 사실을 누가 보이초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의논을 하다가 결국 그 동네의 골초 맹인에게 부탁을 한다. 그 맹인은 교회에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초를 발견해 위험 상황을 알린다. 보이초는 신부의 옷을 훔쳐 입고 신부로 위장하여 탈출을 한다.

쫓기는 사이에 총알에 맞았지만 좀 떨어져 있는 동네에 가서 시골 사람들의 보호를 받게 된다. 사람들이 잘 돌봐 주고 음식을 많이 선물을 준다. 오그냐노브가 조금 나아서 묵었던 집 주인이 하얀교회 마음에 다녀오며 안 좋은 소식을 가져 온다. 의사가 체포 당했고 물레방아 주인을 맞아서 죽었고

라다가 마르코 양반의 친척 집에 가서 사는데 보이초가 죽은 줄 알고 무척 슬퍼한다고 했다.

보이초가 조금 더 나아져서 터키인 위장으로 바로 하얀교회 마을로 간다. 어떤 여관에서 터키인들이 그에 대한 대화를 듣게 된다. 터키인들은 보이초를 잡기 어려운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골마을을 살살히 뒤지기로 하였다.

오그냐노브가 하얀교회 마을로 가는 동안 어떤 술집에서 라츠코 프르드레토 (방귀 라츠코) 하얀교회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터키인들에게 알릴 줄 알고 술집에서 출발하기 전 끈으로 그를 묶는다.

‘명에’ 소설책에 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알트노보 마을의 미팅이다. 옛날에 불가리아 시골마을에 소개팅과 같은 풍습이 있었는데 한 집에서 미혼 남자와 여자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노래로 알려 주는 것이었다. 그 미팅에 는 이반 보리메즈카타 (곰 이긴 이반)처럼 키가 크고 착한 사람도 있었고, 독립 운동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도 있다.

미팅이 끝나자 터키인 두 명이 와서 부활절 금식 기간인데도 집주인에게 닭고기를 요리하라고 하고 그 집의 딸에게 상을 차리라고 명령한다. 터키인들이 그 집에서 미팅 때에 한 남자가 잃어버리고 간 칼을 발견하고 화를 난다. 그 이유는 칼 위에 ‘자유 아니면 죽음’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터키인 두 사람이 칼 주인을 찾으러 간다. 터키인들이 그 집의 딸 두마리를 훔쳐서 그 시골마을에서 나오는 동안 불가리아 남자들이 모여서 그 두 사람을 죽여 버린다. 그리고 늑대들이 터키인을 죽인 것처럼 해 놓는다.

둘째 부분

소설의 둘째 부분은 벨라 체르크바 마을 묘사로 시작한다. 그 동네에 독립운동 준비가 끝나고 모두가 보이초가 죽은 줄 알고 무척 슬퍼해 한다. 그런데 마을에 카블레쉬코브라는 유명한 독립 운동가가 도착해 사람들이 다시 반란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불가리아 자유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한다. 그 중에 칸도브 대학생과 무라틀리이스키가 있다.

소콜로브 의사가 감옥에서 나와 독립 운동을 도와 주는데 그는 많이 달라진 상태이다. 그 이유는 자기를 사랑했던 딸카가 스테프초프와 결혼했고 본인도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온 동네의 사람들이 반 터키 운동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터키편인 유르단 양반은 자기 딸 집에서 딸이 독립군을 위해 요리를 하는 것을 보고 자기 집에 돌아가 아이들이 총알을 만들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한다. 그리고 자기 큰 아들의 총을 발견하고는 크게 화를 낸다.

스테프초프가 터키지도자 집에 가서 독립 운동가들이 회의를 하는 집에 가서 사람을 잡으라고 한다. 그때 지도자 사무실에 불가리아 사람 자마노브 간첩도 있다. 거기서 셋이 밤에 회의 장소에 가서 사람을 잡기로 한다. 그런데 스테프초프가 집에 간 후에 자마노브가 그날 밤에 집을 공격하지 말자고 터키 지도자를 설득시킨다. 그 이유는 자마노브가 어쩔 수 없이 간첩으로 일을 하는데 불가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스테프초프가 길가에서 빠뜨린 소콜로브 편지를 찾아 터키인들에게 보여 주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일반적이니까 비밀스러운 내용을 못 찾는다. 자마노브 간첩이 비밀 내용을 알아 보지만 그것을 터키인들에게 보여 주지

않고 그 대신 불가리아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 집에서 모이지 말라고 경고한다.

같은 날 밤에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불가리아의 자유를 꿈 꾸는데 오그냐노브가 살아 있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 모두가 무기 얼마나 필요하고 그리고 돈을 어디에서 모을 수 있는지 의논한다.

수도원의 집사는 돈이 필요한 것을 알았다. 수도원의 신부는 성격이 나쁘고 돈이 많은데도 모으기만 하고 남들에게 나눠주지 않은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신부한테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집사에게 그 돈을 훔치라고 설득한다. 집사가 원하지 않았지만 불가리아를 위해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밤에 신부에 방에 들어간다. 그런데 돈을 찾는 동안 갑자기 신부가 들어와 집사의 행동을 비판한다. 그리고 그 신부가 남을 도와 주지 않는 구두쇠로 소문이 나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가 모은 돈을 불가리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증했다고 고백했다. 어느 학생을 어느 대학교로 돈을 얼마 주고 보냈는지 하는 기록을 보여 준 다음 집사에게 필요한 돈을 모두 주었다. 그 신부의 마음 때문에 집사가 부끄러워하면서 감사를 한다.

‘멍에’ 소설은 단지 역사 소설이 아니다. 사랑 이야기 (보이초와 라다, 랄카와 소콜로브)도 같이 포함돼 있다. 라다와 보이초가 만나 앞으로 결혼에 대해서 의논을 한다. 하지만 독립 운동 준비 때문에 단장 결혼할 수 없다고 보이초가 라다에게 말을 한다.

독립 운동가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이 다시 모여서 대포를 만들기로 한다. 그 동안 그들이 더 용감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사건이 있다. 마르코 양반이 술에 취한 불가리아 사람이 터키인을 말처럼 타는 것을 보고 결국 불가리아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진다.

‘명예’ 책 둘째부분 16 장을 ‘어떤 국민의 도취’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열심히 독립 운동을 도와 주는 일을 한다.

그 동안 보이초 오그냐노브하고 칸도브 대학생이 같은 여자 라다에게 사랑에 빠져 보이초가 칸도브 때문에 라다하고 싸우게 된다. 칸도브가 라다 사랑에서 도망가기 위해 독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계속 라다를 만나고 싶어서 그녀를 클리수라 도시에 찾으러 갈 때 오그냐노브도 나타나 두 사람이 애인 사이인 줄 알고 화가 난다. 그 때 바깥에 반터키 반란이 시작해서 보이초가 봉기에 참여하기 위해 집에서 나온다. 그런데 불가리아 사람들이 반란을 너무나 빨리 일으킨 것 같다. 클리수라와 코프리브쉬티짜 동네에 원래 5월 1일 시작했어야 되는데 4월 20일에 시작을 한다. 반란 일으킨 도시를 아무 누구도 도와 주지 않고 다른 동네에는 독립 운동이 다 죽은 것 같다. 불가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보잘 것 없다. 대포가 알을 쏠 수가 없고 가지고 있는 총도 많지는 않다.

반란군들이 전호를 만들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전호를 만들라고 일을 시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도망을 못 가도록 탈출자 4명을 잡아서 한 사람을 죽이도록 만든다. 그 4명이 배신자 하나를 죽인 사건 이 후에 나머지 사람들이 탈출 시도를 더 이상 안 한다. 그런데 많은 터키인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또 다시 도망을 가고 싶어서 오그냐노브에게 야단을 맞는다.

다음 날 아침에 터키 작은 그룹이 나타나는데 불가리아 사람들이 협박을 하니까 터키인들이 도망을 가는 것이다. 그 이유로 반란군들이 기분이 좋아져서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그런데 얼마 안 돼 터키 군대

1000 명 정도가 나타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나머지는 싸움에 죽는다. 터키인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도시로 이동을 한다.

터키인들이 가려고 하는 도시에 라다가 현재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다. 보이초한테 버림을 당해서 더 이상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터키인들이 도시를 불에 태우는데도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하고 화재에 죽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때 보리메츠키가 들어가 라다를 살려 준다.

오그냐노브가 자기가 라다를 의심한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고 애인을 살리기 위해 도시로 가다가 라다의 집이 멸망이 되는 것을 목격한다.

셋째 부분

‘명예’ 소설책의 3 제 부분은 반란 이후의 결과에 대한 것이다. 반란은 실패로 끝났고 터키인들이 몇 개의 도시를 초토화한다. 오그냐노브가 살아 남았는데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그 전에 도와 주었던 사람들이 모두 겁이 나서 독립운동가를 안 도와 주려고 하는 것이다. 보이초가 도망가려고 할 때 한 치즈 공장에서 밥 좀 달라고 한다. 그리스 사람인 주인이 빵을 주지만 터키인들에게 치즈 공장에 독립운동가가 있다고 고발도 한다.

오그냐노브가 다시 도망을 가는데 이번엔 보리메츠키와 다른 몇 사람이 도와 준다.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루마니아로 도망을 가고 있었다. 오그냐노브도 본인도 루마니아로 도망가기로 한다. 사람들이 따로 따로 이동을 하는데 오그냐노브가 갑자기 보니까 루마니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벨라 체르크바에 도착을 한 것이다. 동네에 한 작은 교회에 몇 개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 중 하나가 칸도브 대학생의 시체였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이 안 되었다. 근처에 지나가는 마리아카 (터키인 두 명을 죽이면서 물레방아에서 목숨을 살려 준 여자에)를 만나 적지를 주면서 소콜로브 의사나 무라틀리이스키한테만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한다. 마리아카가 그 사람들을 찾는 동안 유르단 양반 가족이 야유회를 하는 데 근처에 지나간다. 그 때 스테프초프가 유르단 장인과 같이 터키인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이 누구인지 알려 주고 무기를 전달함으로써 도시를 살렸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한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온 동네가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주장을 한다. 그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테프초프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하며 고마워 한다.

라다가 유르단 하인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야유회에 같이 가게 된 것이다. 마리아카가 라다를 보고 라다에게 종이를 전달을 하기로 하지만 스테프초프가 그 편지를 빼앗기기로 한다. 마리아카가 소 무리 사이에 도망을 쳐서 기절한다. 그것은 아마 터키인들이 강간하려고 한 밤부터 그녀에게 나타나는 형상일 수도 있다. 그녀가 기절한 사이에 스테프초프와 하나의 터키인이 열심히 종이를 찾지만 하나의 황소 다리 밑에 있었으니까 찾지를 못한다. 황소가 옮긴 다음에 라다가 적지를 발견해 편지를 읽는다. 편지에 보이초가 반란군 말고 일반인의 옷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라다가 직접 옷을 찾으려고 해메다가 맹인 걸초를 만나 그가 자신의 옷을 준다. 라다가 옷을 가지며 보이초가 몸을 숨은 물레방아에 찾으러 간다.

그 사이에 보이초가 터키인이 오는 것을 보고 숨었지만 나중에 알아 보니까 그 사람은 소콜로브 의사였다. 그때 의사로부터 벨라 체르크바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 동네에 아예 반란이 없었다. 클리수라와 코프시브쉬티짜에 반란이 터졌을 때 몇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겁이 나서 운동의 지도자를 한 집에 잠근 것이다. 그리고 터키 군대가 마을을 지나갔을

때 동네를 살리기 위해 그 사람들을 터키인들에게 준 것이었다. 그 지도자는 칸도브 대학생, 무라틀리이스키와 더 두 사람이었다. 소콜로브도 터키인들에게 주려고 했지만 의사가 도망을 간다. 도망가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아무누구도 도와 주지 않고 그가 자기들의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모두가 겁이 나서 독립운동을 안 도와 주려고 했다. 유일하게 도와 준 사람은 한 여자 밀카 토도르치나이다.

오그냐노브와 소콜로브가 만나 둘이 무척 행복하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 때문에 슬프다. 소콜로브가 라다가 칸도브를 좋아하지 않고 보이초만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보이초가 라다한테 잘 못했다고 후회를 한다. 그때 라다가 나타나 둘이 안으면서 얼마동안 사랑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때서야 라다가 터키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전하지만 이미 늦을 때이다. 물레방아가 가는 유일한 길에 벌써 터키인들이 많아서 세 사람이 도망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총알 몇 개밖에 없어서 분명히 죽을 때가 왔다고 알게 된다. 터키인들이 총을 쏘는 동안 라다가 기절해서 총알에 맞아 아무 고통 없이 죽게 된다. 소콜로브가 거의 모든 총알을 쏘고 마지막 하나로 자살을 한다. 오그냐노브가 칼로 터키인들을 죽이다가 본인도 칼로 사망을 한다.

4. 소설 `멍에` 나타난 배반의 의미

배반이란 `자기에 대한 남의 믿음과 기대에 아주 어긋나게 마음을 먹든가 행동하는 것` (연세한국어사전 1999:820)이나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섬` (<http://krdic.naver.com>)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멍에` 소설책에 배반의 방법과 여러 단계를 검토할 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분명한 민족 배반이다. 책에 몇 개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터키편이고 항상 국민 편인척 하면서 터키 지배 밑에 살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유르단 양반 같은 경우에 터키인들 덕분에 부유함을 유지할 수 있어서 평화롭게 터키인들과 살고 싶은 사람이다. 처음부터 불가리아인들의 독립운동을 반대하고 자기 자녀들도 독립 운동에 참여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스테프초프도 그 첫번째 종류의 인물들의 더 하나의 예이다. 젊은 사람인데도 기회주의자이니까 터키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독립운동가를 배반하는 일을 처음부터 하고 복수심이 강한 사람으로 나온다. 몇 번이나 주인공인 보이초 오그냐노브의 위치에 대해 터키인들에게 밀고하고 독립 운동을 반대한다. 그는 터키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상황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독립운동가를 무척 싫어한다.

스테프초프는 처음부터 소설책에 악한 사람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여교사 라다한테 안 좋은 제안을 하고 라다가 거절을 해서 여학교 졸업 시험때 복수하기로 한다. 학생들에게 어려운 식으로 쉬운 질문을 해서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게 된다. 그 때 오그냐노브가 나서서 쉽게 같은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모두 대답을 잘 해서 보이초가 온 동네의 사랑을 얻게 된다. 스테프초프가 오그냐노브를 사람으로 싫어해 그는 오그냐노브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한다. 알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다. 스테프초프가 보이초가 터키인들이 찾고 있는 반란군인지 확인하기 위해 하나의 시험을 한다. 동네에 터키 신문 하나가 오는데 거기에 터키인들이 이반 크랄리츠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실려 있었다. 동네의 메르텐벤치에프 터키편인 불가리아 사람이 보이초에게 일부러 그 신문을 보여 주니 보이초가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 척 하지만 메르텐벤치에프가 그것을 보고 스테프초프한테 보고를 한다.

두번째의 민족 배반하는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른 인간들이다. 불가리아 사람과 불가리아 자유 즉 독립운동가편인 척하면서 터키인들에게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다. 그 중 하나가 라츠코 프르들레토 (방귀 라츠코)이다. 그 사람이 자기 여관에 보이초 오그냐노브를 오라고 해서 잘 해 주지만 배반할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보이초가 여관을 떠나기 전에 그 사람을 끈으로 묶는다. 또 다른 속 다르고 겉 다른 인물이 아브람 여관의 주인이다. 보이초가 터키인 위장으로 하얀교회 마을에 왜 거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동네로 가는 길에 밤에 여관에 들어가서 자기 대신 여주인한테 아들을 하얀교회에 보내서 알아 보라고 부탁을 한다. 그런데 여주인이 남편 아브람 없이 그런 결정을 못한다고 하며 남편한테 물어본다. 남편이 바로 아들을 그쪽으로 보낼 거라고 하지만 터키인들 부른다. 보이초가 겨우 도망을 쳐서 전호로 돌아간다.

또 하나의 인물은 치즈 공장 주인인 그리스 사람이다. 배가 고프 보이초 오그냐노브에게 빵을 주면서 터키 사람을 부른다.

세번째의 배반 방법은 한 순간에 나타나는 배반이다. 겉이 많아서 독립운동을 배신하는 사람이 많다. 클리수라 도시에 반란이 시작하고 전호에서 사람들이 많은 터키 군대를 보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이었다. 모든 용감, 이상을 버리고 실제로 도망간 사람이 많았다. 벨라 체르크바(하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적극적으로 독립 운동가를 도와 주었던 사람들이 터키 군대가 나타났을 때 운동의 지도자를 쉽게 배신하고 터키인들에게 고발을 한다. 동네에 사람들에 따라서 독립운동가들 때문에 터키인들과의 관계가 나빠졌다. 그때 스테프초프와 같은 사람이 동네를 살렸기 때문에 불가리아의 구원자로 보게 되었다.

소콜로브 의사도 도망을 칠 때 어느 누구도 자기 집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네번째 배반은 다른 사람이 배반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배신자가 아님을 알게되는 인물들이다. 예를 들어 흐리스타키 자마노브가 하나의 흥미로운 인물이다. 그는 터키 간첩으로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정보 덕분에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다. 모든 불가리아 사람이 그가 불가리아 독립운동가를 배반할 줄 알았더니 그는 반란군이 잡히지 않게끔 도와 주어서 불가리아 독립운동가들의 존경을 받는다.

수도원의 신부도 비슷한 인물이다. 사람이 모두 그가 독립운동을 싫어하는 줄 알고 그의 돈을 훔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가 불가리아 똑똑한 아이들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사람이고 불가리아 자유에 대한 이상을 마음에 깊이 품은 인물이다.

다섯번째로 실수로 배반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백치 문초이다. 그는 보이초가 터키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을 보고 그 이후부터 보이초를 많이 존경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보이초를 만날 때마다 칼로 머리를 자르는 흉네를 내며 그를 루씨안이라고 부른다. 그런 식으로 사람이 오그냐노브가 터키인 살인을 했다는 것을 알게끔 한다.

5. 결론

이반 바조프의 소설 `명예`가 하나의 명작으로 볼 수가 있다. 바조프가 그 소설로 자신의 불가리아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묘사한다. 그 책에 터키편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물로 나오고 독자들의 비판을 받도록 한다. 속 다르고 겉 다른 인물도 마찬가지로 배신자로 인정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물들이다. 결국 소설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국가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머지는 겁이 많아 또 비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터키인들이 오그냐노브의 머리를 잘라 막대기에 넣어 소리치면서 동네에 들어가는 화면이 묘사돼 있다. 백치 문초가 오그냐노브의 머리를 보고 터키 황제를 욕을 한 이유로 터키 군인들이 그의 목을 매달아 죽인다. 소설책의 마지막 문장에 따라 `그 등신이 유일하게 반대를 할 용기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바조프가 사람들이 겁내는 것을 비판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하나의 배신으로 단정짓는다.

참고문헌

연세한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Vazov. Pod igoto, Sofia: Bulgarski pisatel, 1980

<http://krdic.naver.com>

Abstract

Dr. Yanitsa Ivanova

The meaning of „betrayal” in the novel of Ivan Vazov „Under the Yoke”

Known as the "Poet of the People," Ivan Vazov (June 27, 1850 - September 22, 1921) is Bulgaria's most famous and beloved writer and remains a national icon in the history of Bulgaria's struggle for freedom and independence. He is a poet, novelist and play-writer,

often referred to as "the Patriarch of Bulgarian literature". He was born in Sopot in Bulgaria (then part of the Ottoman empire), spends some time abroad and finishes his life in Sofia.

Bulgaria regained its independence in 1878 as a result of the Russo-Turkish War, 1877-1878 and then Vazov wrote his famous *Epic of the Forgotten*. He was the editor of the political reviews "Science" and "Dawn." He was, however, forced into exile once in Rumania and once to Odessa, because of the persecution of the Russophile political faction. In 1893 Vazov wrote the famous novel *Under the Yoke* which depicts the Ottoman oppression of Bulgaria. Some of the other famous works by Vazov include the novels *The uncles* (1884), *New Country* (1894), *Under Our Heaven* (1900), and the plays *Vagabonds* (1894), *Borislav* (1909) and *Ivaylo* (1911).

Later in his life Vazov was a prominent and widely respected figure in the social and cultural life of newly independent Bulgaria. All his novels, plays, and poems were praised for expressing sympathy for the common people. On October 2, 1920, he was honored by a national jubilee celebrating his completion of fifty years of creative work. He died in Sofia on September 22, 1921.

In the novel *Under the Yoke* Vazov describes first the tranquility in a Bulgarian village under Ottoman rule and the slow change of the society. The leader of the change is Boycho Ognyanov who helps the people for an uprising. The plot follows the story of Ognyanov, who, having escaped from a prison in Diarbekir, returns to the Bulgarian

town Byala Cherkva (White Church) to take part in the rebellion. There he meets friends, enemies, and the love of his life the local teacher Rada. The plot portrays the personal drama of the characters, their emotions, motives for taking part in or standing against the rebellion, treasons and fight.

Historically, the uprising fails due to bad organization, limited resources, and treason. During this time the etalon for morality and straight behavior is Boycho Ognyanov. He is an extreme patriot, faithful to his very end to the idea for national liberty. He shows as a fighter since the beginning of the book by killing two people, he becomes one of the leaders of the bloody uprising of April 1876 and he shows the communion a new morality and a way to behave. For the sake of the national movement even the ideas for moral and immoral (like stealing money or killing) get twisted. Ognyanov shows the way until his end. He dies by killing enemies and making himself killed by them. The book represents the idea that every attitude opposite to his one is understood as a betrayal of the movement for national liberty.

There are several kinds of people in the book showing total opposition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trying to keep the peace with the oppressors. They try personally to fight the protagonist Boycho by using his past and making a report to the local ottoman leader about the gatherings of the rebels. These characters after the tragic crash of the rebellion betray the leaders of the movement by

exchanging their lives for the peace of the town showing themselves as the real saviors and patriots.

Other characters in the novel look patriots in the beginning but after the severe attack of the enemy end by betraying the leaders, escaping from the battle place and leaving the other fighters. Other similar to this behavior is this one of the people who look like collaborationists but report the acts of Ognyanov and the other leaders to the oppressors. Their acts are condemned by the author and the other characters in the book.

The communion of Byala Cherkva also betrays the movement. The people helping the leaders step back and do not rebel, do not help Ognyanov anymore and pretend to be obedient to the oppressor.

The novel also develops the idea that being faithful to the idea of national freedom is a frenzy but it is the only moral way to act in that historical moment.